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삶

(2)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또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삶

성경: 요 20:22, 6:57, 63, 사 12:3-6, 빌 1:19-21상, 갈 6:17-18, 계 22:21

I.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산다.

- A. 주님은 부활하신 날에 그분 자신을 성령(거룩한 숨)으로 그분의 제자들 안에 불어 넣으셨다(요 20:22).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숨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부유한 분이 되실 수 있다(애 3:55-56, 창 4:26, 롬 10:12-13, 영한 동변 찬송가 255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10장)).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쉬신 숨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칠 수 있다(딤후 3:16).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명의 영의 체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신 그 영을 얻는다(요 6:57, 63).
- B.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는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시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들의 누림이 되시는 것이며, 그 목표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확장인 교회 곧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다 — 램 2:13, 애 3:22-24, 고전 1:9.
1. 우리가 부활 안에서 한 영을 마실 때,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 되고 몸으로 건축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된다 — 고전 12:13, 계 22:17, 요 4:14하.
 2. 우리는 주님께 말하고 노래함으로써, 주님에 의해,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길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 시 46:4, 사 12:3-6.
 3.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기를 실행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음료이신 주님을 누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 민 20:8, 빌 4:6-7, 12.
- C.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요 6:57).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또한 읊조림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램 15:16, 시 119:15-16, 수 1:8-9). 단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활력을 주는 요소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에게 공급을 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산다 — 빌 1:19-21상.

- A.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리스도를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을 분배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다 — 빌 1:19, 고전 15:45하, 고후 3:6.

1. 이 넘치는 공급에는 신성, 인성, 십자가에 못 박힘, 부활, 승천, 신성한 속성들, 인간 미덕들이 포함된다.
 2.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생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빌 1:19.
 3.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빌 1:20-21상.
- B. 바울의 모든 생활과 일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거나,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 또는 다른 공로나 장점들을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와 그가 행한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 빌 1:20, 3:3-10, 고후 4:5.
- C. 사도의 몸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었다. 즉, 그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선포되었으며, 그분께서 높아지시고 또 높이 찬양을 받으셨다 — 빌 1:20.
1. 사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을 표현할 기회를 사도에게 준 것이었다 — 행 9:16, 고후 6:4, 11:23, 골 1:24.
 2.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그분을 최고의 누림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 빌 1:18, 4:23.
 3.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를 확대하여,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나타나시도록 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였다 — 빌 1:4, 18, 25, 2:2, 17-18, 28-29, 3:1, 4:1, 4.
 4. 바울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신 것에 대한 선포이자 그리스도께서 다함이 없으신 것에 대한 선포였다 — 엡 3:8, 18, 비교 사 9:6.
- D.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지 못한 실패와 그리스도를 확대하지 못한 패배에서 구원받는다 — 롬 5:10.
- E. 믿는 이들의 본인 바울은 그리스도의 뛰어난 안에 있는 삶을 살았다. 곧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들을 지닌, 완전히 위엄 있는 삶, 수년 전에 주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닮은 삶을 살았다 — 딤후 1:16, 행 27:21-26, 28:3-6, 8-10.

III.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산다 — 갈 6:18.

- A. 날마다 놀라운 신성한 전달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의 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될 수 있다 — 히 10:29하, 요 1:16, 갈 3:2-5, 고후 1:12, 12:9.
1.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며,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다.
 - a.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께 머리의 권위와 왕권과 지배 권위를 드림으로써 그분을 보좌에 앉으시게 해야 한다 — 히 4:16, 롬 5:17, 21, 골 1:18하, 계 2:4.
 - b. 하나님의 보좌는 흐르는 은혜의 근원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지 못하고 그분을 보좌에서 끌어내릴 때, 은혜의 흐름은 중단된다 — 계 22:1.
 - c.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한다면, 생명수의 강이신 그 영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우리에게 공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릴 것이다 — 계 22:1, 영한 동변 찬송가 770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557장).

2. 우리는 예수님의 낙인을 지닐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 — 갈 6:17-18.
- a. 영적으로 예수님의 낙인은 바울이 살았던 생활의 특징들, 곧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은 생활의 특징들을 상징한다. 그러한 생활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며(요 12:24),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6:38),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7:18),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빌 2:8).
 - b. 우리가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의 공급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할 것이다 — 빌 3:10, 고후 4:10-11, 엡 3:2.
- B. 신약 시대 전체에 걸쳐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된 주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확대와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결하고 연합하며 합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된다 — 계 22:21, 엡 2:10.